

선거명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갑	
후보자명	김윤덕	기호		소속정당명	민주통합당
공약번호: 1	공약 제목 : 젊은 정치를 위한 인재육성과 소통강화				
<div>□ 목 표</div> <p>미래에 대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10~20대에는 민주주의 소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년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SNS 및 뉴미디어를 통한 정보 교류와 현장정치를 통한 소통이 요구됩니다.</p> <div>□ 추진공약</div> <div>1. “1020민주주의재단” 설립을 통한 “1020민주주의 클럽” 운영 : “민주주의 재단” 창립, 청년세대에게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추진</div> <div>2. 1020민주주의 장학금 운영을 통한 인력 피드백</div> <div>3. 방학을 활용하여 10대 20대를 위한 “민주주의 캠프”운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민주주의 소양교육</div> <div>4. SNS 사회창안 추진으로 소통정치 실현(비예산 사업) : 시민 아이디어 제안, 국회의원은 이를 입법 추진하는 SNS사회창안을 진행 : 사회적 현안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당나귀투어 추진</div> <div>5. 대안미디어 지원, 공직선거법 개정 등(비예산 사업) : SNS 팟캐스터 등 대안미디어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포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확장</div> <div>□ 재원방안</div> <div>“민주주의 캠프”운영 : 10억원(교육자부담 원칙)</div> <div>향후 “1020민주주의재단” 창립 및 “민주주의장학금” 제도로 발전 : 100억원(기업 및 개인후원금)</div>					
공약번호: 2	공약 제목 : 10분생활권 문화·체육·복지도시				
<div>□ 목 표</div> <p>10분 생활권 내에서 문화·체육·복지가 해결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고령화지역인 원도심에 7080 승승장구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노인틀니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최초로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한 전라북도인 만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도농 상생순환경제를</p>					

실현하겠습니다.

☐ 추진공약

1. 10분 생활권 내 작은 도서관, 동네체육시설 조성

: 문화시설이 전무한 동서학동과 중화산 2동에 작은도서관 건립

: 생활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과 평화 1동에 생활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

2. 7080승승장구센터 건립

: 인구 10만명 당 1개소 설치기준에 준하면 전주시는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설치 가능

: 특히,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원도심지역에 노인복지센터를 겸한 복합복지관으로 7080승승장구센터 건립

3.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 확대를 통한 도농 상생순환경제(비예산 사업)

: 전국적으로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여 도농 상생순환경제 실현

☐ 재원방안

10분 생활권 내 작은 도서관, 동네체육시설 조성

: 10억원(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7080승승장구센터 건립

: 18억원(지방비, 기존건물 구입 후 리모델링)

공약번호: 3	공약 제목 : 마을재생 코디네이터 시범도시
---------	-------------------------

☐ 목 표

그 어떤 지역보다 노후가 심화된 전주 완산갑 지역을 마을재생을 통해 젊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골목길 재생, 한평공원 조성 등 도시에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공약

1. 마을재생 코디네이터 제도 입법화 및 시범도시 지정(비예산 사업)

: 마을재생 코디네이터제도 입법 이후 전주시 원도심 지역을 마을재생 코디네이터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마을재생 추진

2. 공원을 통한 골목길 재생프로젝트 추진

: 지역주민의 일상적 커뮤니티 공간인 골목길에 주민들의 만남과 휴식을 위한 한평공원 10개소 조성

: 전주시와 협의하여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추진과 동시에 한평공원 조성을 통한 구도심

노후주거지 마을재생

3. 구도심 재생을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전통정원, 전라감영복원) 추진

: 일본의 겐로쿠엔, 중국의 이화원과 더불어 아시아 3대 전통정원을 한옥마을 인근에 조성하여 제2의 전주시 대표적 관광지 조성 및 구도심 활성화

: 도청 이전지역에 전라감영을 복원하여 구도심지역의 재생을 견인

□ 재원방안

한평공원을 통한 골목길 재생프로젝트 추진

: 한평공원: 1억원(지방비, 10백만원×10개)

구도심 재생을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전통정원, 전라감영복원) 추진

: 전통정원: 500억원(국비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

: 전라감영복원: 494억원(국비 294억원, 지방비 200억원)

공약번호: 4

공약 제목 : 경제민주주의와 남북교류 지원

□ 목 표

한미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경제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MB정부 이후 경색된 남북교류를 전북의 강점인 농업교류를 통해 대북정책의 물꼬를 열겠습니다.

□ 추진공약

1. 총선승리, 정권 재창출을 통한 한미FTA 비준철회법 통과(비예산 사업)

: 농업은 국내 생산비율 3%이지만, 전북지역 경제생산력에서는 13%를 차지, 전북지역 농업생산 감소액 향후 15년간 1조2600억원 감소 예상

2.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제화(비예산 사업)

: 2011년 25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대기업의 진입자제로 되어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확대 및 강화

3. 협동조합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착한기업 육성(비예산 사업)

: 안정적 일자리, 생산적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협동조합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4. 전라북도차원에서 북한에 쌀과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 전북의 재고 쌀과 이유식 등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전달

: 전라북도·시·군이 2017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남북교류협력기금 89억원을 활용하여(2011년 현재 35억원 조성) 북한에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5. 라면공장 건립 재추진

: 전라북도는 북한에 라면 공장 설립방안을 추진했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무산

: 장기적으로 전북의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연계 및 북측과 경제교류 추진

☐ 재원방안

쌀과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 40억원(전북남북협력기금 40억원)

라면공장 설립

: 20억원(전북남북협력기금 16억원, 전북겨레하나 4억원)

공약번호: 5

공약 제목 : 젊은 전주를 위한 문화서비스 산업수도

☐ 목 표

전주를 전통문화도시에서 문화서비스산업수도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자유로운 상상이 일자리가 되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문화서비스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젊은 전주는 젊은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청년 일자리는 문화서비스 산업에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공약

1. 남부시장을 야시장으로 동부시장을 문화예술거리로 특화

: 전주남부시장을 연 400만명 이상의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연계할수 있는 문화서비스 중심의 Night Economy 특화공간으로 조성

2.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건립

: 1인 창조기업 육성법제정으로 전주시에는 현재 12개 업체가 전주정보영상진흥원 내에 입주해 있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54개사에 달해 현존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확대 건립이 필요

3.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내에 문화서비스업 창업지원 부서 설립(비예산 사업)

4. 청년일자리 산·학·관 커플링(coupling)사업

: 전라북도 전략산업 분야에서 대학·기업간 취업연계, 졸업생 취업협약 체결

5.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의 창업 인센티브 제공

6. 청년 New-Star 육성사업

: 매년 50명씩 4년 동안 1인당 10백만원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 기업가 육성

☐ 재원방안

남부시장 프로젝트 - 10억원(문진성시 2단계 사업,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동부시장을 문화예술거리로 특화 - 16억원(도비 8억원, 시비 8억원)

1인 기업 지원센터 건립 - 66억원(중소기업청 33억원, 지방비 33억원)

청년일자리 산·학·관 커플링(coupling)사업 - 10억원(지방비7억, 대학3억)

중소기업 근속 근로자 창업 인센티브 제공 - 30억원(중기청15억, 지방비15억)

청년 New-Star 육성사업 - 20억원(1명당 10백만원, 지방비20억)